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처차 올리고 비 21/30℃	 흐리고 비 20/29℃

News

- 코스피 지수 급등 ②
- 김재권 의원 부인 구속 ③
- 치매 노인 무료 진단 ④

Books

- 불면증 환자들의 이야기 ⑭

Entertainment

- 발라드 가수들 잇단 컴백 ⑧



- 유명 여배우들 사극 출연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국화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지 내로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전국체전 성화 채화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칠선녀들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10월 10일~16일)의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이날 천제 봉행 의식, 칠선녀 성무에 이어 채화된 성화는 전남도청에 안치 됐으며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불을 밝히게 된다. /강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지자체 경쟁력 '최하위'

행안부, 전국 시·군·구 종합 평가 결과

신안군 등 14곳 낙후도 가장 심해

전국 2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상위 50위권 안에 든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으며 하위 50위권 내에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14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9일 제출받은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하위 20위 내에 구례(7위), 장흥(9위), 진도(11위), 강진(14위), 보성(16), 함평(17위), 완도(18위), 고흥(20위) 등 9개 군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저하는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남지역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 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증감, 인구 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 주민세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상위 50개 지역 중 서울(22개, 44%), 경기(15개, 30%), 인천(4개, 8%)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였다.

비수도권 중 50위권에 든 지역은 ▲울산(2개, 4%) ▲부산(2개, 4%) ▲경남, 충남, 대전, 대구, 경북(각각 1개, 2%) 등이었고 광주, 전남·북, 충북, 강원, 제주 등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하위 50위권에는 전남지역이 14개(28%)로 가장 많았고, ▲경북(12개, 24%) ▲전북(8개, 16%) ▲강원(6개, 12%) ▲경남(6개, 12%) ▲충북(3개, 6%) ▲충남(1개, 2%) 등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내 자치단체간의 편차도 커 전남은 144(광양시 87위, 신안군

시군구 경쟁력 종합평가 하위 10위

순위	시도	지역
1	전라남도	신안군
2	경상북도	영양군
3	전라북도	진안군
4	경상북도	봉화군
5	전라북도	정수군
6	경상북도	의성군
7	전라남도	구례군
8	전라북도	순창군
9	전라남도	장흥군
10	강원도	화천군

231위)의 격차를 보였고 ▲전북 153(전주시 76위, 진안군 229위) ▲경북 183(구미시 47위, 영양군 230위) ▲충북 161(청주시 52위, 보은군 213위) ▲충남 160(천안 39위, 청양군 199위) ▲경기 154(용인시 4위, 여주군 158위)의 차이를 보였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격차는 50(서구 75위, 남구 125위) 이었고, ▲울산 54(남구 32위, 중구 86위) ▲서울 72(강남구 1위, 강북구 73위) ▲부산 85(진구 45위, 강서구 130위) 등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농민회 “벼 출하 거부”

전농 회원 1천여명 전남도청 앞 생존권 결의 대회

전국 농민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농민 1천여명이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식량향의와 농기계 화형식 등 집회를 갖고 앞으로 5개월간 벼 출하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오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앞에서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벼 출하 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식량자금 법제화와 쌀값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식량자급률은 25%밖에 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농민을 죽임으로 몰고 있다”며 “식량자금 법제화와 나락 값 7만원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입법청원과 조례제정 투쟁을 통해 관철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군 농민회장 등 농민회 소속 간부 8명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현장에서 식량투쟁을 벌였으며, 농기계 1대를 태우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도의회에서 시·군별로 도의원들과 만나 간담회

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벼 경영안전 대책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농가에서 향후 5개월간 벼 출하 거부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전체 벼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시장에 출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다음달 중순께 전남도청 앞에서 야적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다음달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야적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1천여명은 19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식량자금 법제화와 쌀값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식량 향의와 농기계 화형식을 갖고 있다. /무안=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수 엑스포 예산 확보 차질

국회 특위 구성 지연... 계획도 수립 못해

2012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여수 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확보 및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원 구성 합의와 함께 여수 엑스포 지원 특위 등 국회 내에 10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위원장만 내정하고 특위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여수 엑스포 지원 특위(위원장 강봉균 의원)는 여야 15명의 위원(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기본 계획을 점검하는 등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여야 간의 추경안 갈등 등에 따라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여수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오는 11월에 발표할 기본 계획에 대

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못하고 있으며 여수 엑스포 관련 각종 행사에도 국회의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사라고사 인정 박람회 폐막식에는 국회의원의 원 가운데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만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수엑스포 지원 특위 구성 및 운용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보 및 기본 계획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여야 간의 현안 문제로 특위 구성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특위 위원 선정 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늦어도 내주까지는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뮤지컬의 정수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mckormu.com

CHICAGO